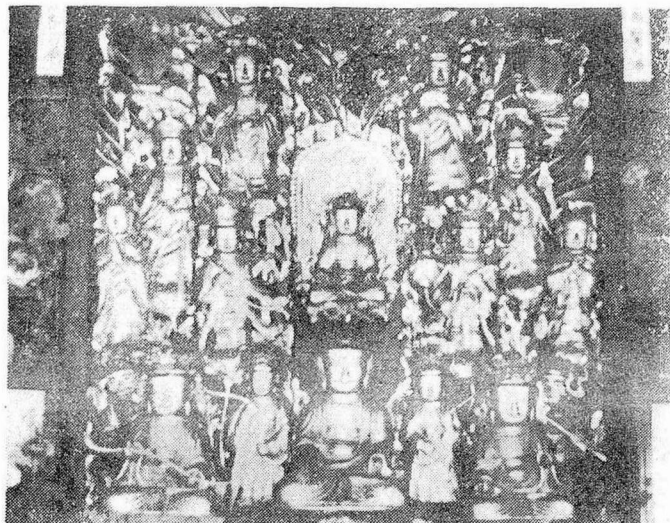


木刻佛幀의 一例

文 甲 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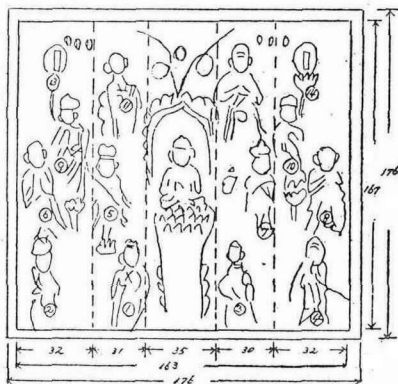
市内 貞陵 慶國寺 極樂寶殿의 後佛幀으로 모셔져 있는 本木刻佛幀은 그彫成이 비록 十九世紀末에 屬하지만 하나 우리나라 木刻佛幀의 稀貴한 一例 ① 이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本寺의 金堂格인 極樂寶殿에는 主尊인 釋迦如來가 文殊, 普賢을 兩脇侍로 하여 李朝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結하고 跏趺하고 있다. ② 이

釋迦如來의 後佛幀인 本木刻佛幀은 全面金箔의 全高 一七 七 全幅 一七六 厚 二五——二六의 透彫로서 彫法이 辟鈍하고 諸像의 印相이 普遍的이어서 여의 木佛幀에 比하면 時代가 下降되리라 곧 짐작이 간다. 中心部는 木板木五枚로 짜여져 있고 別材로 額을 構成하고 있다. 中心部는 佛幀의 거의 中央部에 舟形光背(高五二幅三四)에 높은 蓮臺와 座

(高七〇)위에 本尊 阿彌陀佛(高五二 肩幅一八 膝幅二四)이 通印을 하고 結跏趺座했으며 그 左右에 二軀乃至 三軀의 菩薩, 諸天 등이 四枚板木에 각기 蓮花座위로 立像으로 按配되어 있으니 그 位置와 持物은 大略 다음과 같다.

- ① 普賢 蓮雷
- ② 增長天 念形 龍과 寶珠
- ③ 文殊 蓮雷
- ④ 持國天 念形 長劍
- ⑤ 大勢至 蓮臺
- ⑥ 阿難 合掌
- ⑦ 觀音 蓮雷
- ⑧ 迦葉 智拳印
- ⑨ 除障碍 長劍
- ⑩ 金剛藏 蓮雷
- ⑪ 地藏 寶珠 錫杖
- ⑫ 准提 蓮花
- ⑬ 西方廣目天 像이 없고 蓮座위에 標말로 表示
- ⑭ 北方毘沙門



(9-11)

이 佛이 있고 諸像 間地에는 寶相花紋이 彫出되어 있다. 以上の 諸像은 각기 相應되는 位置에 按配되어 있으며 持物, 彫法 등 大乘寺 木刻佛幀을 縮少시킨 느낌이다. ③

以上 概略을 보건데 頂部의 七佛은 過去 七佛을 나타냄으로 볼 것이며 觀音, 勢至를 兩脇侍로 한 阿彌陀佛을 主尊으로 阿難, 迦葉, 菩薩 등 八人을 周圍에, 外緣左右에 四天王을 配한 것으로 要約된 것이라 하겠다. 이를 다시 釋迦如來의 後佛幀으로 莊嚴한 것 一種曼茶羅의 象徴을 木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現在 木刻佛幀으로서 뚜렷한 銘文이 있는 例는 實相寺 藥水庵의 것을 들 수 있겠다. (乾隆四十七年壬寅) 이를 基準으로 下降하는 것이 大乘寺

의 것을 보겠고 이보다 더 늦추어 十九世紀末의 所作이 본 慶國寺佛幀으로 짐작된다. 佛幀左右에 있는 八相圖의 銘文이 光緒十三年 丁亥(一八八七)로 있으니 이 佛幀도 同時期에 複作되어 奉安된 것으로 볼도 過眼이 아닐줄 본다.

註

① 現在 周知시킨 것으로 예컨대 龍門寺, 尙州 南長寺, 實相寺藥水庵 開慶 大乘寺, 서울 慶國寺 등 五個를 들 수 있다.

② 極樂寶殿이란 主尊이 阿彌陀佛이어야 할 것이나 도리어 阿彌陀佛은 後佛幀의 主佛로서 表現되어 있다. 本寺의 禮拜對象은 佛보다 佛幀이 比重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③ 考美 七卷七號 參照

※ 參考에 使고자 藥水庵佛幀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彌勒菩薩 觀音菩薩

日光菩薩

迦葉尊者 文殊菩薩

主 佛

阿難尊者 普賢菩薩

月光菩薩 勢至菩薩

地藏菩薩

岩寺洞 櫛文土器遺蹟 發掘概要

金光洙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歷史科에서는 지난 八月二十一日부터 二十九일까지 八日間 市內 城東區 岩寺洞 江岸의 櫛文土器遺蹟을 發掘하였다. 作業에는 在學生全員이 參加하였으며 同大學 李元淳教授와 檀國大學校

第九卷 第十一號 通卷 百號

博物館長 鄭永鎬教授가 指導하였다. 筆者도 發掘에 始終 參與하였음으로 이제 報告書에 앞서 當時 發掘 狀況을 略報코자 한다.

岩寺洞 櫛文土器遺蹟은 오래 前부터 學界의 注目을 받던 곳으로 지난 六月에는 國內 數個大學校의 合同發掘이 있던 곳이다. 따라서 詳細한 地域說明은 略하기로 하고 다만 이번 發掘한 곳만을 表示하면 岩寺洞所在의 獎忠高校 球場의 西南角에 接한 自然堤防의 一部分이다. 이것은 當時 連日 賣土되고 있어 表土로부터 七〇cm——二〇〇cm가량의 깊이로 開析되고 있었다. 그 附近에는 흙의 搬出에 依하여 包含되었던 遺物이 多數出土되어 散亂되고 있었으며 흙을 싣는 人夫들도 이곳에서 다른 地域보다 많은 土器片이 出土된다고 하였다.

現地到着은 二十二日 下午 五時頃이었으나 宿所準備와 雨天關係로 實際發掘은 二十三日 午前十時頃에야 始作되었다. 먼저 基點을 定하고 開析되고 있는 地域의 中央로부터 南西向 即 江의 흐름에 平行하여 下流쪽으로 幅一・五m의 트레치를 前進시킨바 約三m地點에서 石造爐址의 一角을 發見하였다. 그리하여 一旦 作業을 中止하고 이 爐址를 中心으로 一邊長 八m의 正方形의 地域을 測定하고 本格的인 作業을 하였다. 이 地域은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大部分이 상당히 除土되었으며 當時의 地面도 고르지 못하였다. 發掘이 進行됨에 따라 많은 土器片이 若干의 石器類와 더불어 出土되었는데 土器는 主로 灰色土器와 櫛文土器가 교란된 狀態에서 出土되다가 下部에서는 櫛文土器만 出土되었다. 石器는 磨製의 石鏃과 石斧片 그리고 打製의 石器 등이 出土되었다. 表土로부터 約九八cm 以下에서 특히 깊이 除土되었던 球場과 接한 部分을 除外하고는 堅穴住居地의 外廓線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始作하였으며 圓形으로 直徑이 約五m—六m가량 예상되었다. 二十七日에는 爐址가 놓여있는 表土로부터 約一八〇cm되는 最底面까지 發掘을 完了하였다. 爐址는 넓직한 片麻岩石을 세워 짜맞춘 것으로서 直徑約七〇cm의 圓形에 가까운 正方形이었으며 住居地의 底面, 大體로 中央에 設置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地域을 A地區라고 表示하기로 하였다.

한편 二十四日에는 A地區의 住居地의 輪廓이 들어남에 따라 다시 A